

# 오늘날의 우정사업의 과제

## 1. 우정사업 창업의 정신

일본은 明治유신으로 영주의 특권을 없애는 廢藩置縣, 더우기 무사에게 약간의 國債를 주고 종래의 부지(扶持—일생동안 안정된 급여)를 폐지했다. 현재 소련에서 당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것과 같은 이상의 개혁을 일거에 해치운 시기이다. 훌륭한 개혁(維新)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도층은 물론이고 국민도,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존망의 위기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재정력도 없는 정부였지만, 우정사업의 확립이 근대국가에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생각하고 지역 독지가의 의협심에 호소하여, 근소한 수당으로 현재의 별정우체국장에 임명하여 단기간에 우체국제도의 기초를 만들었다. 그 先見性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던 관계자의 정신에는 머리가 숙여지는 감이 있다. 그로부터 그 정신은 지금도 우정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우정사업창업의 정신
2. 국제적 고립화의 위기에 있는 일본

## 2. 국제적 고립화의 위기에 있는 일본

오늘날의 일본의 현상은 어떠한가, 패

전에서 소생하여 국민의 노력과 우수한 정책의 결과로 GNP가 세계 제2위로 되고 1인당 소득도 미국을 능가하여 당시에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던 경제대국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일본국민의 노력만으로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간의 자만인 것이다. 미소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동아시아 자유주의국의 방패 역할을 하므로 미국이 관용의 태도로 일본의 경제발전을 직접·간접으로 원조해 주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의 경제적 입장이 역전된데다가 미소대립의 완화에 따라 미국의 대일감정은 일거에 변화되었다. 미국의 최근의 여론조사는 미국에 가장 위협을 주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라고 보고 있으며 소련이라고 한것은 반수정도였다고 한다.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중에서도, 일본에 대해 가장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서독의 폴 수상이 EC를 향한 연설에서 「이제부터, 앞으로 10년을 일본인의 시대로 해서는 안된다」라고 소리높여 부르짖었다.

그렇다면 일본이 서방측 제국과 격리되어 현재와 같은 번영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戰前부터 되풀이하여 일궈어지고 있듯이 「일본은 자원도 빈약하고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기 때문에 수출을 진흥시켜 외화를 벌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자유주의 국으로서의 잇점을 享受하여 발전해 온 일본이 만약에 미국이나 EC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 참상은 상상하기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본자신이 구미 여러나라와 국정(國情)이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그와 같은 나라는 소외시켜 따로 다루어야 한다」라는 議論이 미국 국회측과 유력한 저널리스트사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원인이나 결과로 되어, 전술한 바 「일본위협론」이 갑자기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 안에서도 전후 번영 40년을 떠받쳐온 제도에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엔고(円高)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입상품의 가격이 내리지 않고 심지어 일본제품을 외국에서 구입하는 편이 오히려 저렴하다고 하는 지적이 있다. 또 地價의 폭등은 근로자에게 주택취득의 꿈을 깨고 있고, 최근의 통계에서 개인저축이 7백조엔이라는 방대한 규모로 되어있는데도 근로자의 저축액은 담보 현상이라고 한다. 근로의욕 상실의 전조라고 한다면 지나친 생각일까. 토지문제의 원인은 稅制에 있다. 또, 엔고차익이 환원되지 않는 첫째의 원흉은 각종의 규제가 있어서 자유경쟁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분야가 있기 때문이다. 「行革審」에서는 이를 소비자(국민)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에 대한 답신이 있었다. 지금 미국에서 構造協議의 의제로서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 3. 개선이 급선무인 유통분야

규제완화가 특히 필요한 분야는 광의의 유통부문인데, 商流·물류·금융·통신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상류에서 대표적인 것이, 수퍼의 진출에 대하여 소매점보호를 위해 규제하고 있는 대점법(大店法)이다. 신규의 수퍼를 개설하기 까지 대점법의 규제로 인하여 10년이 걸리는 예가 있다. 또 폐점시간의 규제가 있는데, 원칙은 6시이지만, 특례적으로 겨우 7시까지 할 수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통계로서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35세 주부의 65%는 직업을 갖고 있어 이러한 시간대로는 맞벌이 세대에게 확실히 불편하다. 來客의 피크가 되는 6시부터 9시 사이에 폐점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다. 어떤 점포의 사장은 「원래는(南歐처럼) 주간에는 쉬고, 저녁무렵부터 개점하는 편이 훨씬 더 손님에게 편리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정이다」라고 안타까와 하고 있다.

둘째로는 물류인데 예컨대 수송업계에서 트럭수송업은 노선·지역·상품별로 인가되고 있다. 경제활동이 광역화되고 있는데도 인가지역은 원칙적으로 府縣별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수송코스트가 상승되는 원인이 된다. 운전수를 외국인 노동자로 고용할 수도 없고 해서, 운송료 인상을 하려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송코스트의 상승을 들고 있다.

셋째로는 금융업이다. 금융이야말로 자유주의사회의 혈액이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면 사회에 무엇인가의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틀림없다. 금융기관이 호송선

3. 개선이 급선무인 유통분야

단방식으로 비호되고 있다고 하는 비난은 좀체로 없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서야 소액저금금리의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오랜동안 규제금리하에서 경영효율이 나쁜 금융기관도 도산하는 일이 없는 낮은 예금금리로, 일률적으로 규제되어 왔기 때문에 규모가 큰 은행이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피해의 여파는 서민에게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네째로는 전기통신분야이다. 그 코스트는 설비비와 통신비인데, 통신관계의 기기는 세계에서 두려움을 살 만큼 우수해서 고기능의 것을 염가로 입수할 수 있다. NTT의 민영화, 전기통신사업법의 제정에 의하여 마침내 요금도 인하되고 서비스도 다양화되었지만 통신비에 대하여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다.

이상을 장황하게 기술했으나 물류·금융·상류·정보는 어느것이나 우정사업이 담당하는 분야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 분야는 앞으로 크게 변화해 나갈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우정사업의 과제인 것이다.

#### 4. 우체국에 선구적 역할을 기대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통신판매는 유통코스트의 삭감을 도모하여 중간단계를 배제하고 직

매의 장점을 살려서 최근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신장을 보이고 있다. 금후 더욱더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이 업계의 고민은 중량이 무거운 카탈로그류의 우송료가 비싸다는 것이다. 또 우편대체뿐만 아니라 우편저금·간이보험을 포함한 결제기능과의 결합이 기대되고 있다. 대점법의 예에서 기술한 바 있는 폐점시간이 현재의 소비자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 우체국의 영업시간은 어떤가. 민간의 은행이 토·일요일에 폐점하지만, 공공시설인 우체국은 평일에 쉬고, 토·일요일에는 개점하는 것으로 하는 발상의 대전환이 요망된다. 주민표·여권의 사무취급도 좋지만 타기관이 쉬고 있는 시간에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장점으로 될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고령화사회에의 대응이 급무인 현재, 솔선해서 고령자에 적합한 직장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일까?

우정사업 창업당시의 정신을 상기하여 광의의 유통부문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우체국이 민간부문에서 하지 못하는 선구적 역할을 21세기를 향하여 혁신의 리더로서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

(산도 요이찌,  
아사히 리서치센터장 전무)  
(포스트21, 1990. 4)

#### 4. 우체국에 선구적 역할을 기대

다음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자 한다. 통신판매는 유통코스트의 삭감을 도모하여 중간단계를 배제하고 직